

한국판 청소년용 플로리시 척도 타당화 연구: EPOCH 모델을 중심으로

김도희

김희정

정주리[†]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박사수료

부교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안녕감인 플로리시를 측정하기 위해 Kern과 동료들(2016)이 EPOCH 모델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만 9세~18세 사이 미국과 호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EPOCH 측정 도구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18세 사이의 청소년 507명이다. 자료의 분석은 Jamovi와 AMOS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요인분석, 분산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학생은 Kern 등(2016)이 제안한 5요인을 하위요인으로 상위 2요인으로 구성되는 2차요인 모형, 고등학생은 상위 1요인으로 구성되는 2차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요인 척도의 신뢰도는 .90~.95 사이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 집단의 플로리시 점수가 여학생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플로리시 점수가 고등학생의 플로리시 점수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플로리시는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로리시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과 정신 건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준거 관련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주요어 : 청소년, 플로리시, 척도 타당화, EPOCH 모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주리,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Tel: (062)530-2345, E-mail: jjoeng@jnu.ac.kr

Copyright ©2022, Korean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낮은 행복감과 안녕감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Helliwell, Layard, Sachs, & De Neve, 2020). 자살이 8년째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률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이를 반영하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기는 향후 건강하고 적응적인 시민으로 성장해나가는 밑거름이 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의 안녕감을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들의 안녕감을 높여갈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스트레스와 단기적인 위기, 그리고 우울이나 충동성과 같은 개인의 취약한 내적 특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자살 문제, 낮은 행복 수준을 설명해 온 경향이 있다(김형수, 2019). 하지만 긍정심리학에서는 자살과 같은 문제행동에 대해서도 보호 요인과 탄력성 요인을 연구하여 긍정적인 역량을 개발하여 문제행동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Wingate et al., 2016). 즉, 긍정심리학은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기보다 개인과 집단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조건과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개인과 집단이 가진 긍정적인 강점과 잠재력을 강화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Bolier et al., 2013; Chodkiewicz & Boyle, 2017; Gable & Haidt, 2005;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14). 이러한 긍정심리학적 접근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수준을 높이고,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Seligman, Ernst, Gillham, Reivich, & Linkins, 2009; Shoshani & Steinmetz, 2014; Waters, 2011).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고 추구함에 따라

심리학자들은 안녕감(well-being)에 대해 오랜 관심을 가져왔다(Roscoe, 2009). 행복 혹은 안녕감의 개념은 시대나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지만, 크게는 주관적 안녕감으로 명시되는 쾌락주의적인 입장(hedonic)과 심리적 안녕감으로 명시되는 자아실현적인 입장(eudaimonic)으로 구분하여 논의되어 왔다(Ryan & Deci, 2001). 구체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부정적인 정서를 덜 경험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상태로 정의되며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강조된다(Deci & Ryan, 2008). 반면, 심리적 안녕감은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정서가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수용하면서 경험에 개방적이고 지속해서 성장해가며, 삶의 목적과 의미가 확고하고, 타인과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자율성을 발휘하여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기실현 경향이 강조된다(Deci & Ryan, 2008).

그런데 긍정심리학을 개척한 Seligman(2012)은 기존에 제시된 안녕감이 평소의 기분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삶에 단순히 만족하는 것과 진정으로 안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안녕감의 개념을 보완하여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삶의 상태로써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핀 것과 같이 인생의 꽃을 피우는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플로리시(flourish)란 개념을 도입하였다. Seligman(2012)은 안녕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정서(positive emotion), 몰입(engagement), 관계(relationship), 의미(meaning), 성취(accomplishment)의 다섯 가지 요소를 통해 플로리시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각 요소의 앞 글자를 따서 이를 PERMA모델이라

고 지칭하였다. 플로리시와 PERMA개념을 바탕으로 Seligman(2012)이 제시한 새로운 안녕감 이론은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고려하며 개인이 갖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안녕감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안녕감 이론들과 차별화된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는 기쁘고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몰입은 무엇인가에 흥미를 가지고 집중하여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깊이 빠져드는 경험을 말한다(Seligman, 2012). 그리고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로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갖는 것을 말하며, 의미는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그것을 지향하는 목표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플로리시 관점에서의 의미는 개인을 초월한 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다(Seligman, 2012). 다음으로 성취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것을 말한다(Seligman, 2012). 즉, Seligman(2012)이 주장하는 안녕감 이론에서는 행복이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미덕과 강점을 발휘하여 개인의 기능을 최적화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녕이라고 간주한다. 즉, 플로리시는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녕감까지 포함함으로써 개인이 지속적으로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공동체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이후 Seligman(2012)이 제안한 플로리시의 개념과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성인들의 플로리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개발되었고(Butler & Kern, 2016; Kun, Balogh, & Krasz, 2017), 청소년

년을 대상으로 PERMA 모델의 유용성을 검토하거나(Kern, Waters, Adler, & White, 2015) 문화적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들이 발표되는 등(D'raven & Pasha-Zaidi, 2016; Giangrasso, 2021; Khaw & Kern, 2014; Wammerl, Jaunig, Mairunteregger, & Streit, 2019) 플로리시의 측정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국외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Seligman(2012)이 제안한 개념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삶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성인들이 지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PERMA모형을 청소년 집단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 역시 대두되었다(Kern et al., 2015). 이에 Kern, Benson, Steinberg와 Steinberg(2016)은 성인기에 플로리시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태도, 특성, 혹은 행동이면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적응,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들을 포함한 새로운 모델로 청소년의 안녕감을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Kern 등(2015)은 청소년의 안녕감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소는 거시적으로 교육과 복지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측면 모두에서 청소년의 안녕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존감, 사회성, 안정된 정서와 인지적인 통제력이 있다(Massé et al., 1998).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안녕감에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삶의 맥락을 고려하여 가족, 친구,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다(Huebner, 1994).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긍정심리학 이론을 토대로 Kern 등(2016)은 청소년의 발달적 맥락을 고려하여 청소년기의 몰입(Engagement), 끈기(Perseverance), 낙관(Optimism), 연결(Connectedness), 행복(Happiness)의 다섯 가지 강점이 성인기 플로리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EPOCH모델은 단순히 PERMA 모델의 변용이 아니라 긍정심리학 이론에 근거한 개념들과 함께, Big5와 같은 성격특성, 우정이나 사랑, 가치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강점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발달을 설명하는 긍정적 특징을 선별한 결과로 구성된 것이다(Kern et al., 2016). 즉, 위의 다섯 가지 요소는 PERMA 모델의 각 요소와 연관되어 있으며, 성인이 되어 행복하고 플로리시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강점인 동시에,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안녕한 삶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Kern 등(2016)에 따르면, 몰입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자 일상적인 활동과 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끈기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도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낙관은 부정적인 사건을 일시적이고 상황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갖는 경향을 의미한다(Kern et al., 2016). 연결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느끼는 경향을 의미하며 친밀감을 나타낸다고 보았고, 마지막으로 행복은 전체적인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Kern et al., 2016).

Kern 등(2016)은 이 구성요소들의 앞 글자를

따서 EPOCH 모델과 이러한 구성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향후 성인기 플로리시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Kern 등(2016)은 미국과 호주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개발한 척도를 타당화 하였으며, 이들의 연구에서 EPOCH는 청소년의 신체적 활력과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 의미와 목적에 대한 감각, 희망, 긍정 정서, 또래 및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와의 협력, 인내력(그릿), 학업 성취도를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칠레(Ortiz, Gutiérrez, & Proestakis, 2020), 중국(Kern, Zeng, Hou, & Peng, 2019), 슬로바키아(Šeboková, Uhláriková, & Halamová, 2019), 이란(Taheri, Pourshahriari, Abdollahi, & Hosseinian, 2020)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EPOCH 모델을 검증하고 타당화한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안녕감 구성요소로 위의 5요인이 지지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보고하는 낮은 안녕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Kern 등(2016)이 제시한 EPOCH 모델을 적용해서 청소년들의 플로리시를 탐구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플로리시와 관련된 국내연구는 주로 대학생(김나영, 신현숙, 2020; 신현숙, 2019; 임소성, 김진숙, 2018)과 유아교사(탁정화, 2015; 황해익, 2016; 강현미, 2015)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플로리시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Butler와 Kern(2016)이 개발한 PERMA-Profiler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 척도는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되었으며(심교린, 김완석, 2019), 해당 척도의 문항을 살펴보면 “당신의 삶 속에서 하는 일이 얼마

나 가치 있고 값지다고 느낍니까?”, “얼마나 자주 자신의 책임에 충실합니까?”, “전반적으로 얼마나 삶 속에서 방향 감각을 갖추고 있다고 느낍니까?”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거나 적합하지 않게 여겨지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나마 국내에서 현재까지 청소년의 플로리시를 탐구한 연구는 플로리시와 가족적응성, 또래관계, 자기수용 간의 관계를 규명한 김미정과 문수백(2020)의 연구만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들의 연구 역시 단일한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2010)이 대학생を対象으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청소년의 안녕감과 행복을 살펴본 다수의 국내연구가 존재하지만(예: 서경현, 2012; 전경숙, 정태연, 2009; 한민, 2012), 기존의 연구들은 주관적 만족도와 행복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기능과 잠재력을 나타내는 심리적 특성들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Deci & Ryan, 2008; Kern et al., 2016; Seligman, 2012), 청소년의 안녕감을 적절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안녕감의 다차원성을 가정한 플로리시 이론의 구성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청소년들에게 적용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처럼 국내에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큰 우려, 긍정심리학의 활용과 연구에 대한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김진영, 고영진, 2009; 윤성민, 신희천, 2010; 최연실, 2015), 아직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플로리시 연구가 많이 진척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ern 등(2016)이 청소년들을 대

으로 개발한 EPOCH 모델에 따라 고안된 청소년용 플로리시 측정도구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한국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 초기 및 중기에 속하는 중학생의 발달과업과 청소년 중기 및 후기에 속하는 고등학교의 발달과업이 차이가 있으며,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이라는 학업목표에 더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하여 요인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용 플로리시 측정도구의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으로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플로리시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국내 청소년에게 적합한 플로리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함으로써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판 청소년용 플로리시 척도의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떠한가?

둘째, 한국판 청소년용 플로리시 척도의 준거 타당도는 어떠한가?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플로리시는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자

들 소속 대학에서 IRB 승인을 받은 후(승인번호: 1040198-210521-HR-070-01), G시와 J도 지역 중·고등학교 학교장과 교사들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뒤, 학생들에게 온라인 설문 주소를 배포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에 대한 설명,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과 원하면 언제든지 참여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 청소년으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와 함께 가정통신문을 통해 법적보호자로부터 자료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설문조사에는 519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부의 자료를 제외한 507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만 12세부터 만 18세 사이의 남학생 255명(50.3%)과 여학생 252명(49.7%)이며 그중에서 중학생은 304명(60%)이고, 고등학생은 203명(40%)이다. 세부적으로 중학교 학생 중 남학생 130명(42.8%), 중학교 여학생 174명(57.2%)이고, 고등학생 학생 중 남학생 125명(61.6%), 고등학교 여학생 78명(38.4%)이다. 학년에 따라 중학교 1학년은 123명(40.5%), 2학년은 114명(37.5%), 3학년은 67명(22%)이고, 고등학교 1학년은 93명(45.8%), 2학년은 110명(54.2%)이다.

측정 도구

청소년용 플로리시 척도

Kern 등(2016)이 개발한 EPOCH Measure of Adolescent Wellbeing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5점 Likert 척도이다. 해당 척도는 청소년의 강점이자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인 몰입, 끈기, 낙관, 연결, 행복의 5가지 하위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정은 각 요인별로 4문항의 평균값으로 이루어진다. Kern 등(2016)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합치도는 몰입이 .70, 끈기가 .79, 낙관이 .76, 연결이 .77, 행복이 .83, 전체 문항이 .92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한국어판 EPOCH 척도 타당화를 위해 원 척도 개발자인 Margaret L. Kern으로부터 이메일로 척도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에 두 명의 전문 번역가를 통해서 번역 및 역번역 작업을 거쳐서 대조하는 작업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한 명의 번역가에게 원 척도를 국문으로 번안해주도록 요청하고, 다른 번역가로부터 국문으로 번안된 문항을 다시 영문으로 번안하도록 요청한 뒤, 역번역된 문항과 원문항의 내용에 따라 다른 점수로 평정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민 한 명에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상담심리학 전공 교수 한 명이 번안된 척도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원 척도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면서도 국내 청소년이 평정하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청소년용 플로리시 척도를 번안하였다.

청소년용 심리적 안녕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Massé 등(1998)이 개발한 Well-Being Manifestation Measure Scale을 박은정과 최수미(2014)가 국내에 타당화한 한국 청소년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여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사건에 대한 통제(예시문항: “어려운 상황에 긍정적으로 직면할 수 있었다”), 행복감(“최대한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 사회적 참여(“재미있게 놀고, 운동을 하고,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다”), 자존감(“내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꼈다”), 정신적 균형(“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느꼈다”), 사회성(“내 주변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사건에 대한 통제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침착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복감은 삶이 즐겁고 흥미진진하며 매 순간을 즐기고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참여는 목표와 야망이 있는지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것에 호기심과 관심이 있는지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Massé et al., 1998). 그리고 자존감은 자신감이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신적 균형은 감정적으로 균형 잡힌 느낌을 받는지 혹은 가족과 자신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성은 유머감각이 있으며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인지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Massé et al., 1998). 박은정과 최수미(2014)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사건에 대한 통제가 .79, 행복감이 .82, 사회적 참여가 .67, 자존감이 .85, 정신적 균형이 .77, 사회성이 .75이며 본 연구에서는 사건에 대한 통제가 .92, 행복감이 .93, 사회적 참여가 .89, 자존감이 .79, 정신적 균형이 .91, 사회성이 .89로 나타났다.

청소년용 삶의 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Huebner(1994)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를 바탕으로 이정미(2011)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다면적 학생생활만족척도를 사용하여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척도는 6점 Likert 척도로 2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친구(예시문항: “내 친구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가족(“나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학교(“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기다려진다”), 환경(“나는 우리 동네가 좋다”), 자아 만족도(“나는 좋은 사람이다”)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이정미(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친구 만족도가 .83, 가족 만족도가 .83, 학교 만족도가 .88, 환경 만족도가 .79, 자아 만족도가 .65이며 본 연구에서는 친구 만족도가 .86, 가족 만족도가 .95, 학교 만족도가 .94, 환경 만족도가 .82, 자아 만족도가 .89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척도 단축형

본 연구에서는 김정남(2013)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학교적응척도 단축형을 사용하여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학업(예시문항: “나는 수업시간에 배우고 있는 학습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심리적 안정감(“나는 자주 슬픔을 느낀다”), 사회관계(“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이 도움을 주실 것으로 믿는다”), 학교생활(“나는 학교교칙을 잘 지키고 있다”)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학업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고, 심리적 안정성은 외롭고, 허무한 생각이 들고, 슬픔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며 사회관계는 친구와 부모님이 자신을 존중해주고, 선생님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고, 학교생활은 학교교칙을

잘 지키고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정도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정남, 2013). 김정남(2013)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학업이 .86, 심리적 안정성이 .74, 사회관계가 .79, 학교생활이 .76이며 본 연구에서는 학업이 .95, 심리적 안정성이 .87, 사회관계가 .93, 학교생활이 .91로 나타났다.

간이정신건강진단검사 단축형

본 연구에서는 Derogatis(2001)가 개발한 Brief Symptom Inventory-18 (BSI-18)을 박기쁨, 우상우, 장문선(2012)이 국내에 타당화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사용하여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척도는 0점부터 4점 사이로 평정하도록 구성된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신체화(예시문항: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우울(“기분이 울적하다”), 불안(“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공황(“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박기쁨 등(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신체화가 .71, 우울이 .80, 불안이 .73, 공황이 .80이며 본 연구에서는 신체화가 .89, 우울이 .88, 불안이 .81, 공황이 .81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Jamovi 1.6.23v와 IBM AMOS 21.0v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소년용 플로리시 척도의 점수와 심리

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학교 적응, 정신 건강 점수 간 상관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분산분석을 통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문화권에 따라 EPOCH의 각 요소에 대한 경험과 태도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서구문화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플로리시 척도가 국내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요인구조를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생, 고등학생 표본에서 무작위로 절반을 추출하여 중학생 집단(n=152)과 고등학생 집단(n=102)을 구분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Mardia(1985)'s 다변량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왜도 $b=186.70$, $z=3173.84$, $p<.001$; 첨도 $b=582.55$, $z=24.27$, $p<.001$). 다변량 정규성은 각각의 관측변수의 결합 분포가 이변량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변인이 측정되었을 때 전체 관측변인의 결합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다수의 연구자들(Bentler & Yuan, 1999; Hu, Bentler, & Kano, 1992)은 각 문항의 일변량 정규성을 검토하여 왜도와 첨도가 정규성에 벗어나고 최대우도방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한다면, 다변량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첨도와 왜도 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문항에서 왜

도와 침도의 절댓값이 2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각회전(oblimin) 방법을 결합한 최대우도방법으로 공통 요인을 추출하도록 설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의미 있는 요인의 수는 고유치와 스크리 도표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Kaiser-Meyer-Olkin 값은 중학생집단에서 .939, 고등학생 집단에서 .948로 보고되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는 중학생 집단에

서 $\chi^2(df=190)=2926, p<.001$, 고등학생 집단에서 $\chi^2(df=190)=2888, p<.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중학생 집단에서는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이 2개이고(Kaiser, 1960), 스크리 도표에서도 2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Cattell, 1966), 평행 분석(Parallel analysis)에서도 2개 요인이 제안되어

표 1. 청소년용 플로리시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Kern등의 5요인 모형	중학생 표본		고등 학생 표본
		1요인	2요인	
5.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는 편이다.	.69	.579		.916
7. 어떤 일을 하든 완전히 몰두하는 편이다.	.71	.832		.888
11. 어떤 활동에 너무 몰두해서 다른 일들을 잊어버리곤 한다.	.68	.354		.812
12. 무언가를 처음 배울 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잊곤 한다.	.66	.827		.870
2.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마무리한다.	.67	.670		.818
9. 숙제를 시작하면, 다 마무리하기 전까진 멈추지 않는다.	.66	.865		.692
17.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면, 어려워도 끝까지 해낸다.	.79	.900		.831
19.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72	.606		.822
3. 나는 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다.	.66	.478	.394	.909
13.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기대한다.	.65	.411	.335	.834
15.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79	.706		.908
18.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도 나는 문제없이 해낼 거라고 믿는다.	.75	.658		.877
1.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소식을 나눌 사람이 주변에 있다.	.70	.877		.821
10.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	.78	.936		.894
14. 내 곁에는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	.75	.918		.875
16.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	.64	.628		.855
4. 난 행복하다.	.80	.882		.896
6. 내겐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	.73	.790		.937
8. 내 삶에 만족한다.	.74	.775		.911
20. 나는 밝은 사람이다.	.74	.766		.910

(Horn, 1965) 2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첫 번째 요인은 전체 분산의 38.3%를 설명하고, 두 번째 요인은 27.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은 원척도의 연결, 행복 요인과 낙관에 속하는 일부 문항들이 속하였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원척도의 끈기, 몰입 요인의 대부분의 문항과 낙관에 속하는 일부 문항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이 1개이고 (Kaiser, 1960), 스크리 도표에서도 1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Cattell, 1966), 평행 분석(Parallel analysis)에서도 1개 요인이 제안되어(Horn, 1965) 단일 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분산의 74.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난 요인부하량은 문항과 함께 표 1에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한 표본자료를 제외한, 중학생 집단(n=152)과 고등학생 집단(n=101) 자료를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요인구조를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따른 2요인 모형, 원척도에서 제안한 5요인 모형, 그리고 쌍요인 모형(bifactor model)과 2차요인 모형(second-order factor model)을 분석하여 비교해봄으로써 보다 적합한 모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상위 요인을 구성할 때 중학생 집단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원척도의 낙관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다른 요인과 달리 하나의 요인으로 명확하게 묶이지 않았으나, 낙관은 연결, 행복과 내용적 관련성이 더 높고 더 많은 문항이

같은 요인에 속했기 때문에 같은 요인으로 포함시켰다. 즉, 중학생 집단에서 상위요인으로 2차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결, 행복, 낙관 요인으로 설명되는 고차 요인과 몰입, 끈기 요인으로 설명되는 고차 요인이 설정된 2차요인 모형을 구성하고 쌍요인과 2차요인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단일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쌍요인 모형과 5가지 요인이 단일 상위요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설정된 2차요인 모형을 분석하였다.

중학생 집단 자료를 통해 그림 1과 같이 각 모형을 분석한 결과, 탐색적 요인으로 도출된 2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169)=588.022$, $p<.001$, CFI=.846, TLI=.827, SRMR=.076, RMSEA=.128로 나타났고, 원척도에 따른 5요인 모형에서는 $\chi^2(df=160)=443.482$, $p<.001$, CFI=.896, TLI=.877, SRMR=.058, RMSEA=.108로 나타났다. 쌍요인 모형에서의 적합도는 $\chi^2(df=150)=562.769$, $p<.001$, CFI=.849, TLI=.808, SRMR=.363, RMSEA=.135로 나타났으며 2차요인 모형에서는 $\chi^2(df=164)=476.432$, $p<.001$, CFI=.885, TLI=.867, SRMR=.062, RMSEA=.11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등학생 집단 자료를 통해 그림 2와 같이 각 모형을 분석한 결과, 탐색적 요인으로 도출된 1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170)=591.955$, $p<.001$, CFI=.848, TLI=.830, SRMR=.046, RMSEA=.158로 나타났고, 원척도에 따른 5요인 모형에서는 $\chi^2(df=160)=364.673$, $p<.001$, CFI=.926, TLI=.913, SRMR=.041, RMSEA=.113로 나타났다. 쌍요인 모형에서의 적합도는 $\chi^2(df=152)=384.938$, $p<.001$, CFI=.916, TLI=.895, SRMR=.039, RMSEA=.124로 나타났으며 2차요인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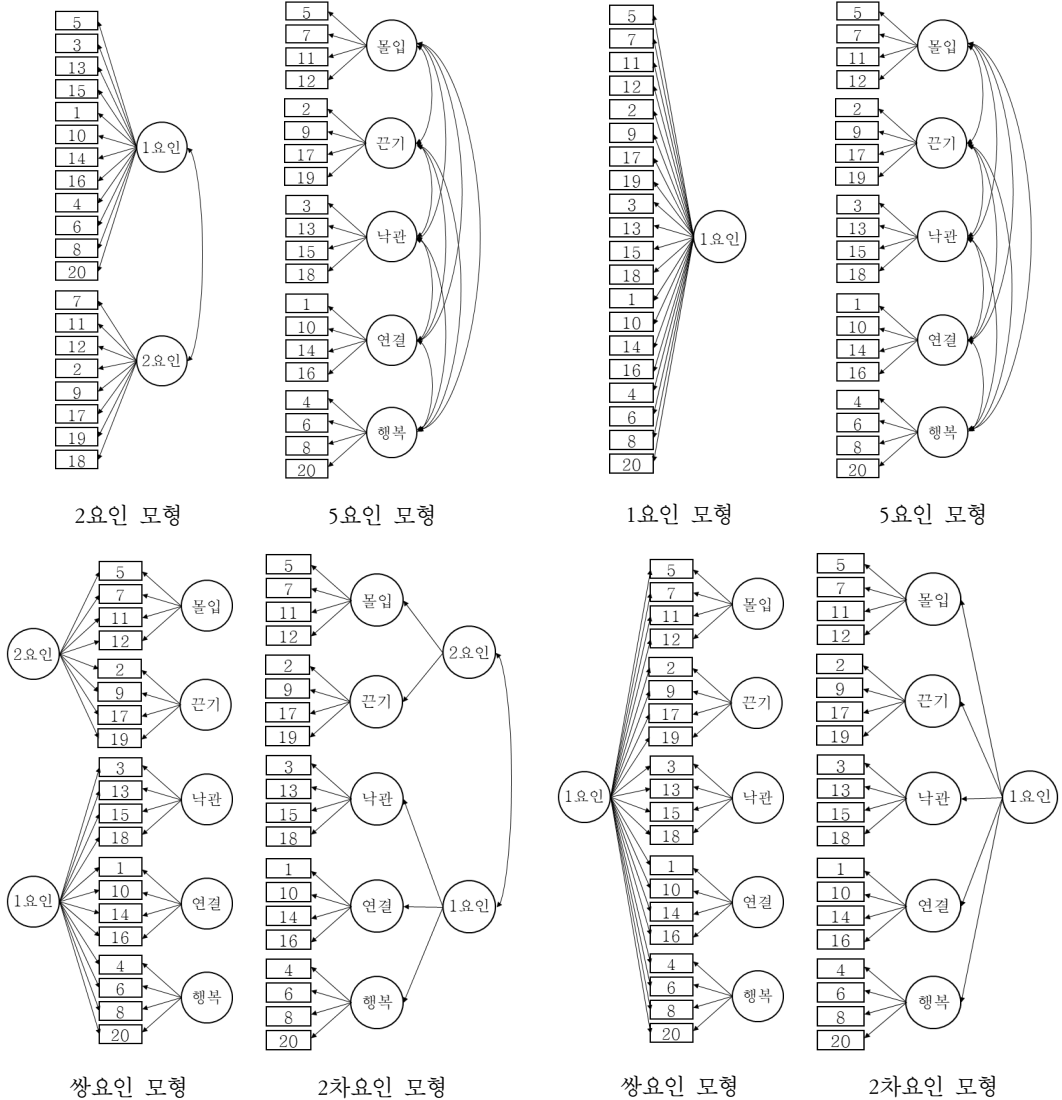


그림 1. 중학생 확인집단 자료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그림 2. 고등학생 확인집단 자료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에서는 $\chi^2(df=165)=424.606, p<.001, CFI=.907, TLI=.893, SRMR=.045, RMSEA=.125$ 로 나타났다.

각 모형의 적합도에 차이가 일부 있지만, CFI와 TLI 값이 .90보다 낮거나 RMSEA가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 수용

기준에 모두 부합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Kern 등(2016)이 제안한 요인구조가 이론에 기초하여 각 구성요소가 갖는 의미와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되었고 원 척도가 동서양의 여러 문화권 국가에서 동일한 구성 요인으로 타당화되었다는 점에 비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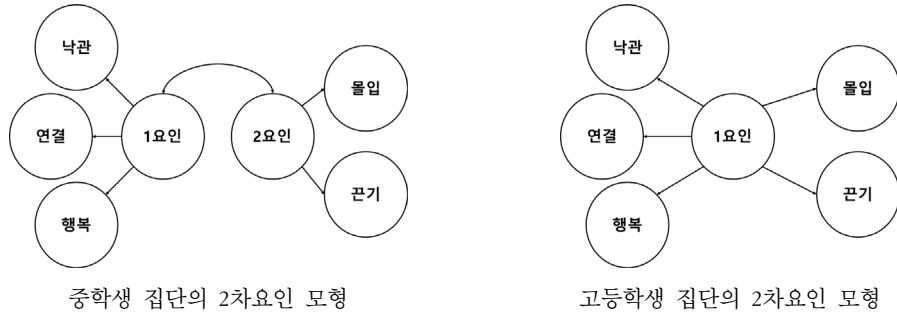


그림 3. 청소년용 플로리시 척도의 최종요인구조

어렸을 때(Kern et al., 2019; Ortiz et al., 2020; Šeboková et al., 2019; Taheri et al., 2020) 향후 위 척도를 사용한 국가 간 비교연구 등을 위해서 원래의 요인구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척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이에 Kern 등(2016)이 설정한 5요인 구조를 아예 해체하기보다는 그림 3과 같이 Kern 등(2016)가 제시한 5요인에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하위요인으로 두고 상위요인을 설정한 2차요인 모형을 채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Kern 등(2016)의 연구에서도 EPOCH 요인들 간에 최소 .39부터 최대 .70사이의 높은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수정지수를 토대로 관련성이 강하게 나타난 문항 간 공분산을 허용하여 적합도를 다시 검토하였다.

중학생 집단 자료에서는 내용의 유사성을 토대로 1번(“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소식을 나눌 사람이 주변에 있다.”)과 14번(“내 곁에는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 7번(“어떤 일을 하든 완전히 몰두하는 편이다.”)과 9번(“숙제를 시작하면, 다 마무리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는다.”), 11번(“어떤 활동에 너무 몰두해서 다른 일들을 잊어버리곤 한

다.”)과 12번(“무언가를 처음 배울 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잊곤 한다.”), 17번(“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면, 어려워도 끝까지 해낸다.”)과 18번(“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도 나는 문제없이 해낼 거라고 믿는다.”), 19번(“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과 20번(“나는 밝은 사람이다.”) 문항 간 공분산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chi^2(df=159)=335.786, p<.001, CFI=.935, TLI=.923, SRMR=.055, RMSEA=.086$ 으로 모형 적합도가 개선되었다.

다음으로 고등학생 자료에서는 수정지수를 토대로, 관련성이 강하게 나타난 끈기와 몰입, 연결과 몰입 요인 간 공분산을 허용하고, 1번(“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소식을 나눌 사람이 주변에 있다.”)과 3번(“나는 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다.”), 2번(“시작한 일은 반드시 마무리한다.”)과 12번(“무언가를 처음 배울 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잊곤 한다.”), 4번(“난 행복하다.”)과 15번(“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6번(“내겐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과 17번(“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면, 어려워도 끝까지 해낸다.”), 8번(“내 삶에 만족한다.”)과 12번(“무언가를 처음 배울 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잊곤 한다.”) 문항 간 공분산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chi^2(df=158)=305.902, p<.001, CFI=.936, TLI=.947, SRMR=.038, RMSEA=.097$ 로 모형 적합도가 개선되었다.

신뢰도 분석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표본 자료를 대상으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를 분석하였다. 중학생 집단(n=304)에서 나타난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96이며 하위요인별로 몰입이 .85, 끈기가 .88, 낙관이 .88, 연결이 .92, 행복이 .9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위

2차 요인의 신뢰도는 1요인이 .83, 2요인이 .91로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고등학생 집단(n=203)에서 나타난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98이며 하위요인별로 몰입이 .93, 끈기가 .93, 낙관이 .94, 연결이 .95, 행복이 .96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위 단일요인의 신뢰도는 .97로 보고되었다.

타당도 분석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플로리시와 이론적 관련성이 높은 심리적 안녕감, 삶

표 2.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

		몰입	끈기	낙관	연결	행복	플로리시
심리적 안녕감	사건에 대한 통제	.68***	.75***	.77***	.67***	.71**	.79***
	행복감	.72***	.72***	.81***	.81***	.86***	.86***
	사회적 참여	.72***	.76***	.77***	.66***	.72***	.80***
	자존감	.65***	.65***	.73***	.72***	.78**	.78***
	정신적 균형	.68***	.72***	.76***	.75***	.82***	.82***
	사회성	.70***	.68***	.76***	.80***	.80***	.82***
삶의 만족도	친구 만족도	.55***	.50***	.57***	.76***	.66***	.67***
	가족 만족도	.59***	.60***	.64***	.67***	.69***	.70***
	학교 만족도	.53***	.58***	.59***	.50***	.59***	.61***
	환경 만족도	.56***	.57***	.62***	.68***	.69***	.69***
	자아 만족도	.63***	.65***	.75***	.68***	.78**	.77***
학교 적응	학업	.59***	.69***	.66***	.53***	.59***	.67***
	심리적 안정감	-.13**	-.11*	-.03	.08	.09*	-.02
	사회관계	.69***	.68***	.71***	.78***	.76***	.80***
	학교생활	.66***	.68***	.68***	.74***	.71***	.76***
정신 건강	신체화	-.06	-.12**	-.18***	-.19***	-.24***	-.18***
	우울	-.39***	-.45***	-.54***	-.52***	-.60***	-.55***
	불안	-.20***	-.31***	-.35***	-.35***	-.41***	-.34***
	공황	-.16***	-.24***	-.31***	-.29***	-.34***	-.30***

주: * $p<.05$, ** $p<.01$, *** $p<.001$

의 만족도, 학교 적응 및 정신 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플로리시 총점과 심리적 안녕감 요인과의 상관계수는 $r=.78(p<.001)$ 에서 $r=.86(p<.001)$ 사이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로리시 총점과 삶의 만족도 요인과의 상관계수는 $r=.61(p<.001)$ 에서 $r=.77(p<.001)$ 사이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플로리시와 각 하위 요인은 기존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 및 삶의 만족도 척도와 높은 수렴 타당도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플로리시와 학교 적응 및 정신 건강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플로리시 총점과 학교 적응 요인과의 상관계수는 사회관계가 $r=.80(p<.001)$, 학교생활이 $r=.76(p<.001)$, 학업이 $r=.67(p<.001)$ 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은 $r=-.02(p>.05)$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플로리시 총점과 정신 건강 요인과의 상관계수는 $r=-.18(p<.001)$ 에서 $r=-.55(p<.001)$ 사이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용 플로리시 척도는 학교 적응 척도 및 정신 건강 척도와

표 3. 중학생 표본에서의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

		몰입	끈기	낙관	연결	행복	1요인	2요인	플로리시
심리적 안녕감	사건에 대한 통제	.61***	.71***	.72***	.59***	.65***	.71***	.71***	.74***
	행복감	.65***	.67***	.75***	.75***	.83***	.84***	.71***	.83***
	사회적 참여	.66***	.73***	.73***	.57***	.64***	.70***	.75***	.75***
	자존감	.54***	.57***	.65***	.64***	.72***	.72***	.60***	.71***
	정신적 균형	.62***	.67***	.71***	.71***	.78***	.80***	.69***	.79***
	사회성	.61***	.61***	.70***	.76***	.76***	.80***	.66***	.78***
삶의 만족도	친구 만족도	.51***	.45***	.53***	.77***	.64***	.70***	.52***	.66***
	가족 만족도	.52***	.58***	.60***	.64***	.65***	.68***	.59***	.68***
	학교 만족도	.47***	.53***	.55***	.43***	.54***	.55***	.54***	.60***
	환경 만족도	.48***	.51***	.57***	.62***	.64***	.66***	.53***	.64***
	자아 만족도	.55***	.62***	.72***	.63***	.75***	.76***	.63***	.74***
학교 적응	학업	.51***	.63***	.60***	.46***	.51***	.57***	.62***	.62***
	심리적 안녕감	-.08	-.02	.04	.17**	.18**	.14*	-.05	.07
	사회관계	.64***	.63***	.66***	.75***	.72***	.77***	.69***	.77***
	학교생활	.62***	.63***	.62***	.70***	.66***	.72***	.67***	.73***
정신 건강	신체화	-.08	-.19***	-.24***	-.22***	-.29***	-.27***	-.15*	-.23***
	우울	-.33***	-.45***	-.53***	-.49***	-.58***	-.58***	-.42***	-.54***
	불안	-.19***	-.34***	-.39***	-.35***	-.43***	-.42***	-.29***	-.39***
	공황	-.10	-.26***	-.28***	-.28***	-.32***	-.32***	-.19***	-.28***

주: * $p<.05$, ** $p<.01$, *** $p<.001$

높은 준거관련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중학생 표본만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플로리시 총점은 심리적 안녕감 요인($r=.71\sim.83, p<.001$) 및 삶의 만족도 요인($r=.60\sim.7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적응의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사회관계($r=.77, p<.001$), 학교생활($r=.73, p<.001$), 학업($r=.62, p<.001$)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r=.07, p>.05$)은 유의하지 않았다. 플로리시와 정신 건강 요인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r=-.23\sim-.54, p<.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리적 안녕감은 상위 2차 요인 중 1요인($r=.14,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요인과의 상관($r=-.05, p>.05$)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고등학생 표본만 분석하여 살펴본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플로리시 총점은 심리적 안녕감 요인($r=.85\sim.90, p<.001$) 및 삶의 만족도 요인($r=.67\sim.80,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적응의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사회관계($r=.82, p<.001$), 학교생활($r=.79, p<.001$), 학업($r=.74,$

표 4. 고등학생 표본에서의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

		몰입	끈기	낙관	연결	행복	플로리시
심리적 안녕감	사건에 대한 통제	.78***	.81***	.84***	.77***	.80***	.85***
	행복감	.81***	.78***	.87***	.87***	.89***	.90***
	사회적 참여	.79***	.79***	.82***	.77***	.81***	.85***
	자존감	.79***	.76***	.84***	.82***	.87***	.87***
	정신적 균형	.75***	.78***	.81***	.79***	.86***	.85***
	사회성	.79***	.76***	.82***	.85***	.85***	.87***
삶의 만족도	친구 만족도	.60***	.55***	.62***	.74***	.67***	.68***
	가족 만족도	.66***	.63***	.69***	.69***	.72***	.72***
	학교 만족도	.60***	.63***	.63***	.60***	.66***	.67***
	환경 만족도	.65***	.63***	.67***	.74***	.73***	.73***
	자아 만족도	.72***	.70***	.78***	.74***	.80***	.80***
학교 적응	학업	.68***	.75***	.73***	.62***	.68***	.74***
	심리적 안녕감	-.22**	-.24***	-.14*	-.07	-.06	-.15*
	사회관계	.75***	.74***	.77***	.81***	.80***	.82***
	학교생활	.71***	.73***	.75***	.78***	.76***	.79***
정신 건강	신체화	-.03	-.01	.10	-.14*	-.17*	-.10
	우울	.44***	-.45***	-.55***	-.54***	-.61***	-.55***
	불안	-.22**	-.26***	-.31***	-.33***	-.38***	-.32***
	공황	-.23**	-.22**	-.33***	-.29***	-.36***	-.31***

주: * $p<.05$, ** $p<.01$, *** $p<.001$

$p < .001$)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리적 안정감($r = -.15, p < .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화 요인($r = -.10, p > .05$)을 제외한 나머지 정신 건강 요인($r = -.31 \sim -.55, p < .001$)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보다 높은 전체 플로리시, 연결, 행복 수준을 보였다. 몰입($F = 1.01, p > .05$)과 끈기($F = 2.44, p > .05$), 낙관($F = .72, p > .05$)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집단 차이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플로리시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플로리시 총점($F = 15.45, p < .001$)과 몰입($F = 23.32, p < .001$), 끈기($F = 11.18, p < .001$), 낙관($F = 17.83, p < .001$), 행복($F = 11.02, p < .001$)의 네 가지 하위 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전체 플로리시, 몰입, 끈기, 낙관, 행복을 보였다. 연결($F = 4.94, p > .05$)은 성차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플로리시 총점($F = 4.43, p < .05$)과 연결($F = 12.25, p < .001$), 행복($F = 7.29, p < .01$)의 두 가지 하위 요인에서 학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강점과 기능을 최적화하여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도록 강조하는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Kern 등(2016)이 제안한 EPOCH 척도(The EPOCH Measure of Adolescent Wellbeing)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청소년의 안녕감 혹은 행복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척도는 국내외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번안한 척도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적화하여 향후 성인이 되어 플로리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긍정적인 심리 특성이자 조건에 해당하는 몰입, 끈기, 낙관, 연결, 행복의 다섯 가지

표 5.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정 결과

	남학생		여학생		F	중학생		고등학생		F
	M	SD	M	SD		M	SD	M	SD	
몰입	3.41	1.10	2.94	1.07	23.32***	3.22	1.04	3.11	1.21	1.01
끈기	3.25	1.08	2.93	1.08	11.18***	3.16	1.05	3.00	1.15	2.44
낙관	3.40	1.11	2.98	1.14	17.83***	3.23	1.09	3.14	1.22	.72
연결	3.85	1.10	3.62	1.23	4.94	3.88	1.10	3.51	1.24	12.25***
행복	3.59	1.13	3.25	1.18	11.02***	3.53	1.09	3.24	1.25	7.29**
플로리시	3.50	1.01	3.14	1.04	15.45***	3.40	.95	3.20	1.14	4.43*

주: * $p < .05$, ** $p < .01$, *** $p < .001$

요인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도록 개발되어 기존의 척도와 차별화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POCH 측정도구를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요인 구조가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기존의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학교 적응과 정신 건강 수준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용 플로리시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EPOCH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5요인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이 5요인을 바탕으로 한 상위 요인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Kern 등(2016)의 연구에서도 각 요인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나 요인 간 변별 타당도가 낮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각 문항의 내용과 요인은 장기간에 걸쳐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의 특성인 그릿(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과 시간 감각을 잃을 만큼 무엇인가에 온전히 집중하여 참여하는 몰입(Csikszentmihalyi, 1997)을 비롯하여 긍정심리학에서 수년 동안 연구되어 온 개념적 근거,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으며 변별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유사한 요인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요인을 통합하기보다는, 이들 요인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몰입과 끈기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한 가지 일에 끈기 있게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 일에 숙달되어 즐거움을 갖고 온전히 몰두하는 경험을 더 빈번하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연결과 행복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여러 연구

자(Adler, 1938; Maslow, 1943; Seligman, 2012)들이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그러나 칠레, 중국, 슬로바키아, 이란(Kern et al., 2019; Ortiz et al., 2020; Šeboková et al., 2019; Taheri et al., 2020)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 Kern 등(2016)과 같은 5요인 구조로 나타났다는 것은 본 연구결과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앞서 언급한 다른 문화권에서 실시한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5요인으로만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2차요인 구조모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을 때와 비슷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본 연구자들은 다른 문화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가 국내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요인구조를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5요인이 지지되지 않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국내 청소년 응답자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가 반영하여 5요인을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후 상위요인을 설정한 2차요인 구조를 설정하였다. 참고로 이러한 2차요인 구조를 설정하는 예는 다른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예: Neff, 2003; Pratscher et al., 2019).

구체적으로, 중학생 집단에서는 상위 2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몰입과 끈기 요인을 포함하는 상위요인(EP)과 연결, 행복, 낙관 요인을 포함하는 상위요인(OCH)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EP요인은

몰입이나 끈기를 필요로 하는 인지적 특성과 관련이 높으며, OCH요인은 연결, 낙관, 행복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특성과 관련이 높다고 여겨진다. 실제 상관분석 결과에서 EP요인은 OCH요인보다 학업과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OCH는 EP요인보다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과 관련된 변인과 관련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중학생의 플로리시가 몰입과 끈기를 포함하는 요인과 연결, 행복, 낙관을 설명하는 요인 간의 구분이 뚜렷하여 2개의 상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요인이 다른 변인과 갖는 관련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상위 1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별 평균을 구하여 단일한 잠재 변인을 추정하거나 모든 요인을 합한 총점을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중학생 집단과 달리 상위 1요인으로 나타난 이유는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을 서열화하여 대학입시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한국의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이들이 지각하는 학업 압력 수준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조혜진, 이지연, 장진이, 2013; Sovet & Metz, 2014). 즉, 고등학생들은 학습 성취에 대한 과중한 책임을 느끼며 학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일상이 학업 중심으로 돌아가기에(김영지, 유설희,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1), 이들의 플로리시를 측정하는데 하위요인 간의 엄격한 분리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를 달리 해석해보면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안녕감은 학업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한편, 한국판 청소년용 플로리시 척도의 신

뢰도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하위요인별로 신뢰도, 상위요인 신뢰도, 전체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변안한 척도의 문항들이 각 요인과 상위요인, 척도 전체를 일관성 있게 측정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여겨진다. 한편, 본 연구에서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의 상위요인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하위요인에서 기본적으로 5요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후속연구에서 연구문제에 따라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을 구분해서 다른 요인구조를 적용할 수도 있고,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학교 급 구분 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한국판 청소년용 플로리시 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심리적 안녕감과 하위요인인 사건에 대한 통제력과 정신적 균형, 사회적 참여 정도와 사회성, 자존감과 행복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 가족, 학교, 환경, 자아와 관련된 여러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플로리시 총점과 각 요인이 삶의 만족도보다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심리적 안녕감 변인과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플로리시의 각 요인이 자아실현적인 입장에서 논의되는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되었다. 아울러 플로리시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에 성실히 임하고, 단체 생활 규칙을 준수하며 교사 및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적응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우울, 불안, 신체화, 공황을 비롯한 정신 병리 수준도 유의하게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플로리시를 지향하는 긍정

심리학적 접근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학교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플로리시는 학교 현장과 상담 장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학습 목표 중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긍정적인 정서와 탄력성을 높이는 데에 유용한 기술을 가르치고, 학습 공동체의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의 번영을 추구하는 긍정심리학적 교육(positive education)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Seligman et al., 2009). 긍정심리학은 강점과 기능을 활용하도록 초점을 둔 목표지향적인 개입을 통해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교육이나 문제에 초점을 두는 상담 패러다임과 맥을 달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플로리시를 지향하는 청소년 상담과 교육 패러다임의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며, 구체적인 실천적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청소년의 행복과 안녕감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최근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크게 확산된 것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인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료하지 않다고 지적된다(강민수, 최지혜, 신창호, 2020). 그러나 긍정심리학 관점에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강점과 미덕을 측정하고 계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플로리시를 지향하는 교육은 근거 기반 교육의 실천을 추구하도록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Seligman et al., 2009), 인성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는 데에 유용한 시사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학교 집단에서는 학교 적응 척도의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심리적 안정감은 플로리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 시기가 사춘기를 겪는 주요한 시기로 여겨지며,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플로리시의 수준과 관계없이 정서적으로 불안정을 많이 경험하는 시기라는 점에 기인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고등학교 집단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이 플로리시와 오히려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강점과 기능을 최적화하여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 정서적으로 편안하기만 한 과정이 아니라 깊은 고민과 정서적 불안정을 수반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플로리시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작정 이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불안정을 감소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들이 느끼는 정서적 불안정을 이해하고, 타당화함으로써 이들의 고민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플로리시 척도의 총점과 하위 요인의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조사한 결과, 연결 요인을 제외한 몰입, 끈기, 낙관, 행복의 네 가지 하위 요인과 플로리시 총점에서 남학생 집단의 점수가 여학생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플로리시 총점과 연결, 행복의 두 가지 요인에서 중학생 집단의 점수가 고등학생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리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플로리시 전체 수준과 일부 하위요인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 연구에서는 청소년

년기 여학생들이 대인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사건에 더 예민하게 정서적 반응을 보이거나 내면화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안녕감이 낮게 평가되었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Flook, 2011).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우울하거나 불안이 높은 남학생 집단이 안녕감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Derdikman-Eiron et al., 2011).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남성 혹은 여성 집단에서 안녕감 점수가 더 높거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는 등 상이한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Batz & Tay, 2018; Meisenberg & Woodley, 2015). 그러나 메타분석 연구 결과를 종합해봤을 때 안녕감에서 남녀 간 차이는 불분명하다고 보고되며, 성별에 따른 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고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되는 변인들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다(Batz & Tay, 2018).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성차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성별에 따라 플로리시를 경험하는 맥락이나 질적인 차이를 탐구하고, 이러한 요인이 다른 심리사회적 변인들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추가로 조사한다면, 플로리시에서 나타난 성별의 차이를 더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 집단보다 중학생 집단에서 플로리시 총점과 행복, 연결의 요인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고등학생이 될수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욱 증가하여 행복감과 관계를 통한 만족(연결)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플로리시 총점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추측된다. 이 결과는 청소년기 동안에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국내 청소년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 변화를 추적한 연

구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일관되게 만족도가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박병선, 2019).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행복감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에서도 꾸준히 행복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혜림, 이지민, 2018). 15세부터 17세 사이의 홍콩 학생 집단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Shek와 Liu(2014)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아 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고, 대만에서 이루어진 Jhang(2019)의 연구에서도 12세부터 15세까지 삶의 만족도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청소년용 플로리시 척도는 단순히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으로 안녕감을 측정하는 기존의 척도보다 더 세부적으로 요인들을 구분하여 안녕감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포괄적으로 청소년들의 안녕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진다.

플로리시를 측정하기 위해 PERMA 모델이 제안된지 10년이 지났지만, 긍정심리학 내에서 플로리시의 요인구조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VanderWeele, 2017). 특히 대상에 따라 플로리시의 요인구조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Kern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한국판 청소년용 플로리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EPOCH 모델의 각 요인을 측정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복지, 상담 등의 현장에서 한국판 청소년용 플로리시 척도를 활용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플로리시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

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본 연구는 507명의 자료를 분석하기는 하였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 표본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본수를 더욱 확대하여 한국판 청소년 플로리시 척도의 활용가능성과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탐색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집단에서도 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로 대상을 확장하여 타당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재검사를 수행하지 못한 관계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종단 연구 등을 통해 플로리시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안정성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변화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교 급에 따른 플로리시의 차이는 확인했지만, 다른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나, 무엇이 플로리시를 예측하는지, 플로리시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후속연구에서 탐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미 (2015). 영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역량

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3), 159-184.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김니영, 신현숙 (2020). 대학생의 기본심리욕구 충족과 플로리싱의 관계: 생애목표와 희망의 중다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10), 187-213.
 김미정, 문수백 (2020). 청소년의 플로리싱과 가족적응성, 또래관계, 자기수용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8(2), 1-14.
 김영지, 유설희,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정남 (2013).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교적응 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497-517.
 김진영, 고영건 (2009). 긍정 임상심리학: 멘탈 휘트니스(mental fitness)와 긍정 심리치료(positive psychotherapy).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1), 155-168.
 김형수 (2019). 청소년의 자살 위기 경로 및 위험요인의 영향. 상담학연구, 20(5), 273-288.
 박기쁨, 이상우, 장문선 (2012). 대학생 집단을 통한 단축형 간이정신진단 검사-18(BSI-18)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2), 507-521.
 박병선 (2019).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궤적 및 성별 간 차이분석. 인문사회 21, 10(1), 1121-1132.
 박은정, 최수미 (2014). 한국 청소년 심리적 안녕감 척도 타당화(K-WBMM) 연구. 청소년학

- 년학연구, 21(8), 495-511.
-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4(2), 121-154.
- 서경현 (2012). 청소년의 삶에 대한 기대와 주관적 웰빙: 일반 성인과의 비교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2), 137-157.
- 신현숙 (2019). 긍정심리자본의 공존활력이 대학생의 플로리싱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6(11), 157-184.
- 신교린, 김완석 (2019). 한국판 플로리시 척도 (K-PERMA) 타당화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5(5), 319-340.
- 윤성민, 신희천 (2010). 한국판 긍정심리치료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707-732.
- 이정미 (2011). 한국판 청소년용 다면적 학교 생활만족척도(K-MSLS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115-133.
- 임소성, 김진숙 (2018). 한국판 대학생 안녕감 척도 타당화 연구: 플로리싱과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상담학연구*, 19(3), 51-72.
- 전경숙, 정태연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1), 133-153.
- 조혜진, 이지연, 장진이 (2013). 고등학생의 과중한 학업요구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3), 1605-1621.
- 최연실 (2015). 가족치료와 긍정심리학의 연계: 기반과 활용의 탐색. *가족과 가족치료*, 23(3), 401-419.
- 탁정화 (2015). 유아교사의 교수몰입과 행복플로리시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3), 235-264.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20). 2020 청소년 통계. 보도자료. <https://www.kostat.go.kr>에서 2021년 3월 8일 인출.
- 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김경미, 류승아 (2012).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 타 연령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5), 217-235.
- 한혜림, 이지민 (2018).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잠재성장모형 연구: Alderfer의 ERG 이론을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36(1), 103-117.
- 황해익, 이강훈 (2017).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조직몰입, 교수몰입, 행복플로리시간의 구조관계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2(1), 325-352.
- Adler, A. (1938). *Social interest: a challenge to mankind*. London: Faber & Faber.
- Batz, C., & Tay, L. (2018). Gender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In E. Diener, S. Oishi, & L. Tay (Eds.), *Handbook of well-being*. Salt Lake City, UT: DEF Publishers.
- Bentler, P. M., & Yuan, K. H. (199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small samples: Test statistic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4(2), 181-197.
- Bolier, L., Haverman, M., Westerhof, G. J., Riper, H., Smit, F., & Bohlmeijer, E. (2013). Positive psychology interventions: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studies. *BMC Public Health*, 13(1), 1-20.
- Butler, J., & Kern, M. L. (2016). The PERMA-Profil: A brief multidimensional measure of flourishing.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6(3), 1-48.
- Cattell, R. B. (1966). The scree test for the

- number of factor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2), 245-276.
-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3), 464-504.
- Chodkiewicz, A. R., & Boyle, C. (2017). Positive psychology school based interventions: a reflection on current success and future directions. *Review of Education*, 5(1), 60-86.
- Csikszentmihalyi, M. (1997). *Finding flow: The psychology of engagement with everyday life*. New York, NY: Basic Books.
- D'raven, L. L., & Pasha-Zaidi, N. (2016). Using the PERMA model in the United Arab Emirat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5(3), 905-933.
- Deci, E. L., & Ryan, R. M. (2008). Hedonia, eudaimonia, and well-being: an introduct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1), 1-11.
- Derdikman Eiron, R. U. T. H., Indredavik, M. S., Bratberg, G. H., Taraldsen, G., Bakken, I. J., & Colton, M. (2011). Gender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 being, self esteem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adolescents with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Findings from the Nord Trøndelag health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2(3), 261-267.
- Derogatis, L. R. (1977). *SCL-90-R: Administration, Scoring & Procedures Manual-II for the R(evised) Version*. Baltimore, MD: Clinical Psychometric Research.
- Diener, E., Wirtz, D., Tov, W., Kim-Prieto, C., Choi, D. W., Oishi, S., & Biswas-Diener, R. (2010). New well-being measures: short scales to assess flourishing and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7(2), 143-156.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1087-1101.
- Flook, L. (2011).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daily interpersonal events and well being. *Child Development*, 82(2), 454-461.
- Gable, S. L., & Haidt, J. (2005). What (and why) is positive psycholog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2), 103-110.
- Giagrasso, B. (2021).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ERMA-Profilier as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measure in an Italian context. *Current Psychology*, 40(3), 1175-1184.
-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 De Neve, J. E. (2020). *World Happiness Report 2020*.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orn, J. L. (1965). A rationale and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in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0(2), 179 - 185.
- Hu, L. T., Bentler, P. M., & Kano, Y. (1992). Can test statistic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be trusted?. *Psychological Bulletin*, 112(2), 351-362.
- Huebner, E. 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49.
- Jhang, F. H. (2019). Life satisfaction trajectories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 poverty:

- exploring the role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Adolescence*, 75, 85-97.
- Kaiser, H. F. (1960).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computers to factor analysi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 141-151.
- Kern, M. L., Benson, L., Steinberg, E. A., & Steinberg, L. (2016). The EPOCH measure of adolescent well-being. *Psychological Assessment*, 28(5), 586-597.
- Kern, M. L., Waters, L. E., Adler, A., & White, M. A. (2015).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well-being in students: application of the PERMA framework.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0(3), 262-271.
- Kern, M. L., Zeng, G., Hou, H., & Peng, K. (2019). The Chinese version of the EPOCH measure of adolescent well-being: testing cross-cultural measurement invariance.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37(6), 757-769.
- Khaw, D., & Kern, M. (2014).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the PERMA model of well-being. *Undergraduate Journal of Psychology a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8(1), 10-23.
- Kun, Á., Balogh, P., & Krasz, K. G. (2017). Development of the work-related well-being questionnaire based on Seligman's PERMA model. *Periodica Polytechnica Social and Management Sciences*, 25(1), 56-63.
- Mardia, M. V. (1985). Mardia's test of multinormality. In S. Kotz & N. L. Johnson (Eds.), *Encyclopedia of Statistical Sciences* (Vol. 5, pp. 217-221). New York: John Wiley.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 Massé, R., Poulin, C., Dassa, C., Lambert, J., Belair, S., & Battaglini, A. (1998). The structure of mental health: Higher-ord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meas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5, 475 - 504.
- Meade, A. W., Johnson, E. C., & Braddy, P. W. (2008). Power and sensitivity of alternative fit indices in tests of measurement invari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3), 568 - 592.
- Meisenberg, G., & Woodley, M. A. (2015). Gender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gender equalit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6(6), 1539-1555.
- Neff, K. D. (2003).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self-compassion. *Self and Identity*, 2, 223-250.
- Ortiz, P., Gutiérrez, J. L., & Proestakis, A. (2020). Adaptación chilena de la Escala de Bienestar Adolescente EPOCH. *Revista Electrónica en Educación y Pedagogía*, 4(7), 54-66.
- Prastcher, S. D., Wood, P. K., King, L. A., & Bettencourt, B. A. (2019). Interpersonal mindfulness: Scale development and initial construct validation. *Mindfulness*, 10, 1044-1061.
- Roscoe, L. J. (2009). Wellness: A review of theory and measurement for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7(2), 216-226.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41-166.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Šeboková, G., Uhláriková, J., & Halamová, M. (2019). Faktorová štruktúra, reliabilita a validita dotazníka EPOCH na meranie well-beingu adolescentov. *Československá Psychologie*, 63(3), 280-298.
- Seligman, M. E. (2012).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eligman, M. E., & Csikszentmihalyi, M. (2014).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In M. Csikszentmihalyi (Ed.), *Flow and the foundations of positive psychology* (pp. 279-298). Dordrecht, The Netherlands: Springer.
- Seligman, M. E., Ernst, R. M., Gillham, J., Reivich, K., & Linkins, M. (2009). Positive education: positive psychology and classroom interventions. *Oxford Review of Education*, 35(3), 293-311.
- Shek, D. T., & Liu, T. T. (2014). Life satisfaction in junio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Hong Kong: a 3-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7(3), 777-794.
- Shoshani, A., & Steinmetz, S. (2014). Positive psychology at school: a school-based intervention to promote adolescent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6), 1289-1311.
- Sovet, L., & Metz, A.J. (2014). Parenting styles and career decision-making among French and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4(3), 345-355.
- Taheri, A., Pourshahriari, M., Abdollahi, A., & Hosseinian, S. (2020). Psychometric assessment of the Persian translation of the EPOCH measure among adolescent girls. *Current Psychology*, 2020, 1-10.
- VanderWeele, T. J. (2017). On the promotion of human flourish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4, 8148-8156.
- Wammerl, M., Jaunig, J., Mairunteregger, T., & Streit, P. (2019). The German version of the PERMA-Profiler: evidence for construct and convergent validity of the PERMA theory of well-being in German speaking countries. *Journal of Well-Being Assessment*, 3(2), 75-96.
- Waters, L. (2011). A review of school-based positive psychology interventions. *The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ist*, 28(2), 75-90.
- Wingate, L. R., Burns, A. B., Gordon, K. H., Perez, M., Walker, R. L., Williams, F. M., & Joiner, T. E., Jr. (2006). Suicide and positive cognitions: positive psychology applied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suicidal behavior. In T. E. Ellis (Ed.), *Cognition and suicide: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 261-28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원고접수일 : 2022. 03. 10.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5. 31.

최종게재결정일 : 2022. 07. 21.

The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Adolescents' Flourish Scale: Focusing on the EPOCH Model

Dohee Kim

Hee-Joung Kim

Ju-Ri Joe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Doctoral Student

Associate Professor

The EPOCH Model was developed by Kern et al. (2016) to measure adolescents' flourish referring to sustainable well-being as a product of their individual strengths and resources. Kern et al. (2016) validated the original EPOCH scale using American and Australian adolescents aged 8-18 years old.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a Korean translation of the EPOCH scale, a Korean adolescents' flourish scale, using a sample of Korean adolescents.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507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ged 12-18 years ol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actor analyses, ANOVAs, reliability analyses, and correlational analyses in Jamovi and AMO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second-order factor model with 5 factors at the first level and 2 factors at the second level was appropriate for middle school students, while a second-order factor model with 5 factors at the first level and 1 factor at the second level was appropriate for high school students. The reliability of the Korean adolescents' flourish scale was .90-.95. Male students reported higher flourish levels than female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flourish level was higher than that of high school students. Moreover, Korean adolescents' flourish was positively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problems.

Key words : adolescents, flourish, scale validation, EPOCH model

부 록

한국판 청소년용 플로리시 척도

아래의 문장들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주세요. 정답은 없으니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그런 편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소식을 나눌 사람이 주변에 있다.	1	2	3	4	5
2. 시작한 일은 반드시 마무리한다.	1	2	3	4	5
3. 나는 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다.	1	2	3	4	5
4. 난 행복하다.	1	2	3	4	5
5.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는 편이다.	1	2	3	4	5
6. 내겐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	1	2	3	4	5
7. 어떤 일을 하든 완전히 몰두하는 편이다.	1	2	3	4	5
8. 내 삶에 만족한다.	1	2	3	4	5
9. 숙제를 시작하면, 다 마무리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는다.	1	2	3	4	5
10.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	1	2	3	4	5
11. 어떤 활동에 너무 몰두해서 다른 일들을 잊어버리곤 한다.	1	2	3	4	5
12. 무언가를 처음 배울 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잊곤 한다.	1	2	3	4	5
13.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기대한다.	1	2	3	4	5
14. 내 곁에는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	1	2	3	4	5
15.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6.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	1	2	3	4	5
17.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면, 어려워도 끝까지 해낸다.	1	2	3	4	5
18.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도 나는 문제없이 해낼 거라고 믿는다.	1	2	3	4	5
19.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1	2	3	4	5
20. 나는 밝은 사람이다.	1	2	3	4	5